

# 현대 웨딩드레스에 사용된 비즈 자수기법에 관한 연구

윤혜숙\* · 곽태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웨딩드레스는 결혼이라는 행사를 거행하는데 여성들이 착용하는 예복중의 하나이다.

19C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결혼의상을 백색 새틴을 소재로 하면서부터 중세이후 상복의 색상으로 정착되었던 백색이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웨딩드레스는 다른 의상과 달리 색상이 백색 또는 아이보리색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로 디테일과 장식 등에 비즈 자수(Beading)기법을 사용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결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신부를 돋보이도록 화려함을 표현해주는 것도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므로 이에 비즈자수 기법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웨딩드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즈 자수를 응용한 장식기법에 관하여 연구하는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2002년도에 발행된 이태리의 Sposabella, La sposa, Book sposa와 미국의 Bride's, Modern bride, Brides 등의 웨딩 패션 전문 잡지의 화보에 게재된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웨딩분야에 있어 선진국인 이태리와 미국의 화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한국이 동양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국가인 일본, 대만 등의 웨딩디자인보다 미국, 이태리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두 나라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되어지기 때문이다.

현대 웨딩디자인에 나타난 비즈 자수 사용 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폴라주 기법은 커팅한 레이스 위에 비즈 자수를 하여 애플리케 하는 방법이다.

둘째, Beads on embroidery 기법은 드레스 소재에 도안을 하여 자수를 놓고 비즈 자수로 그위를 트리밍하는 방법이다.

셋째, 흩뿌리기 기법(Sprinkling)은 특정한 도안이나 바탕 레이스 없이 비즈를 흩뿌린 듯이 보이도록 꿰매어주는 방법이다.

위에서 열거한 현대웨딩드레스에서의 비즈 자수 사용기법은 현대 웨딩드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식기법이면서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웨딩드레스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 자수 기법을 이용한 창의적 디자인개발이 이루어져 웨딩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